

오전(1부, 노량진) 6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월드

Jesus Centered News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25년 12월 28일 (제 1338 호)

1부(오전) 7시

2부(오전) 10시

3부(오후)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 30분

주일에배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봉 우 컬 럼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 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라/ 자나 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피 주시고/ 모든 일 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40년 세월을 나는 매일 아침 이 찬양으로 하루를 열었다. 지금까지의 삶은 부분적인 은혜가 아니라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 는 것이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의 은혜다. 돌아 보니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 다. 내가 지혜가 많아서, 능력이 뛰어나서 도 아니다. 넘어질 때마다 붙들어주시고, 길을 잃을 때마다 다시 방향을 잡아주신 하 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까지 오게 했다.

우리는 흔히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은혜’라 고 말한다. 형통할 때, 길이 열릴 때,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은혜 의 의미도 깊어져야 한다. 잘된 일만이 아 니라 되지 않은 일도 은혜였고, 빨리 응답 되지 않은 기도 역시 은혜였다는 것을. 어 떤 문은 열리지 않았기에 우리가 안전한 길 로 갈 수 있었고, 기다림은 고통스러웠지 만, 그 시간 속에서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하 게 다듬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자에게 더 큰 은혜 를 베푸신다. 12월에 주신 서울성전 부지 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우 리가 마침내 해냈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의 때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말은 결산의 시간 이 아니라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무엇을 이루었는가를 따지기보다 누가 여 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시간이 어야 합니다. 한 해가 비록 힘들었을지라도 그것 역시 정금을 만드는 과정이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지금까 지 온 것도 주의 은혜요, 올해를 잘 마무리 하게 하신 것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으로 한 해를 닫는 사람은, 이 고백 으로 다시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될 것입 니다. 우리, 은혜로 살아왔으니, 은혜로 다 음 걸음을 힘차게 내딛읍시다.

아듀(adieu), 2025!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달려갑시다

“목표가 나를 이끄는 겁니다. 축구선수가 공을 차니까 그 공을 쫓아 달려가지 않습 니까? 가만히 서서 폼만 잡고 서 있다가 는 금방 공을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부 지런히 공을 차고 달리는 겁니다. 왜요? 골을 넣기 위해서.”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거나 현실에 안주 하려는 사람들에게 목사님이 교훈하시 던 말씀입니다. 현상 유지는 퇴보라고 하 셧지요. 그리고 ‘변화가 싫거들랑 현실에 만족하고 살라’고도 하셨습니다.

우리가 2025년 한 해를 달려온 힘은 전 대미문의 기적을 맛보자는 슬로건 아래 서울교회 성전건축이라는 목표가 있었 고, 또 그를 위한 기도회를 통하여 각자 세운 목표들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물론 서울성전 건축이라는 목표는 이전 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올림픽

공원을 나오면서부터 오랫동안 기도해 온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 오랜 숙원에 하나님은 12,000평 대지로 허락하셨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성전건축과 성전 봉헌 의 대역사를 목표에 두고 새해부터 달려 가야 합니다.

목사님은 항상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목적인 바를 하나님께 응답받았 으면 그 성취는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우 리는 또 새로운 목표를 향해 기도하며 달 려가야 합니다. 성취에 취해서 현실에 안 주하다가는 거북이에게조차 뒤쳐진 토 기 신세가 되고 맙니다.”

목사님을 따라 달려온 세월에 우리는 정 말 쉴 새가 없었습니다. 또 기억을 끄집 어내서 말씀드리면, 1992년 메인스타디 움 집회를 위해 우리는 6개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하며 전도했습니다. 목사님은 맥에서 나와 전도단 본부 사무실에서 숙 식하시며 기도하셨고, 성도들은 TV를 들고 사방팔방으로 노방전도에 나가 메 인스타디움을 채우기 위해 총력을 다했 지요. 그때는 정말 하루하루가 전시상황 이었습니다. 모여 기도하고 흠어져 전도 하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6월 7일 메인스타디움 집회를 역사의 한 페이지로 만들었습니다.

보통 그런 대사를 치르고 나면, 더구나 성공적인 성취를 이루고 나면 함께 축배 를 들고 그동안의 노고를 서로 위로하며 회포를 풀기 마련이죠. 그런데 그날 집

회를 마치고 무얼 했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사님은 교역자 및 재직들을 본부 사무 실로 모이라 하셨어요. 그리고는 카펫이 깔려 있는 기도실로 데리고 들어가시더 니, 모두 바닥에 앉게 하시곤 오늘의 역 사를 이루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 를 드리자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한참을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끝이었어 요. 다음날부터 다시 또 새로운 목표를 위해 뛰어야 했지요.

지금도 해마다 분기별로 진행되는 기도 원 집회가 있고, 목사님의 해외집회가 격 월로 진행됩니다. 가을이면 기도성회, 지 방집회 등, 우리는 쉴 새 없이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달려갈 것입니다. 한 해 를 마무리하며 또 새해를 맞이하려는 지 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각오로 서 있 습니까? 목사님께 배운 바로는 지난 것 은 감사하고 앞날을 위해서는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오로지 하나 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 에 잘 되었든, 혹은 실망스럽든 다 하나 님의 은혜입니다. 1992년 올림픽공원을 나와 지금까지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오랜 시간 인내하며 감사하며 기다린 결 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어찌 보 면 목사님의 목회 40년을 지나, 마치 광 야의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데자뷰처럼 선물로, 성전 없이 광야를 헤쳐온 40년의 기다림 끝에 응답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가 응답 되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이유도, 좌절할



서울성전 건축과 봉헌을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2005년 10월 3일 인천성전 봉헌 광경)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감사와 기도로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 다입니 다.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에 우리가 배운 하나님이지요. 항상 더 좋은 길로 인도 하시는 하나님, 실망시키지 않는 하나님, 약속한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 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 하지 않으셨나요?

2025년을 마무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기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하 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서울성전 건축을 위해 힘차게 달려봅시다!

한은택 목사

송구영신 예배

2025년 12월 31일 (수) 저녁 10시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눅16:10)

내목회 철학,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라

“네가 예수가 아순가에 미쳤구나.”
지금도 그 음성이 귓가에 쟁쟁합니다. 재산을 무 자르듯 잘라가며 밤낮으로 주의 일만 하느라 세상일을 폐하고, 장손으로서 마땅한 의무였던 제사까지도 거부하는 아들이 너무 못마땅하셔서 우리 어머니가 펄펄 우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고후5:13)라고 했는데, 저도 예수로 온전히 미쳤습니다. 예수 외에 보이는 것도, 들리는 것도 없었니까요.
그런데 저는 미쳤다는 말이 싫지 않습니다. 미쳤기에(狂) 미칠 수(及)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 시대 역사의 획을 그은 사람들은 그 분야에 미쳤기에 위대한 과업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그 중 하나라고 자부합니다. 광명시 철산리에서 한 명의 성도로 시작하여 오늘날 예수중심하나되기운동을 통해 세계 70여 개국을 아우르는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미쳤기에 가능했습니다.

대충은 인생의 암이요 내 인생의 암적인 존재다

제게는 지금까지 변치 않는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눅16:10),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충성의 다른 이름이 ‘최선’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가 충성의 기준입니다. 성경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계2:10)고 했지요? 이는 ‘최선을 다하라’, ‘사력을 다하라’, ‘그것에 미쳐라’라는 말씀입니다.
41년 세월을 돌아보니 정말 사력을 다해 달려온 것 같습니다. 눈 덮인 산야, 물 없는 사막을 건너는데 대충대충, 건성으로 걸었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저는 정말 매사에 죽기 살기로 달렸습니다. 그래서 부모, 형제, 처자는 물론이고 친구들조차 외면하며 외롭던 시절을 이겨냈고, 교계로부터 제명되는 고통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물 설고 말도 선 외국 선교는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이 힘들었지만 이제 복음의 활로가 넓어졌고, 서울성전 없이 달려온 세월도 이제 마침표를 찍을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선교하고, 최선을 다해 나누고,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욥8:7)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대충은 인생의 암입니다. 대충은

순 우리말이지만, 저는 대충을 대신할 대(代), 벌레 충(蟲)으로 풀어 ‘벌레가 인생을 다 먹어치운다’라고 해석합니다. 배에 회충이 많으면 영양을 다 회충이 먹어버려 몸이 축나는 것처럼, 대충이란 균을 잡지 않으면 그것이 인생을 망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운동장에서 달음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찌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달음질하라”(고전9:24)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이 말인즉 ‘이왕 달리기를 하면 으름이 되어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려면 대충대충, 설렁설렁 달리지 말고 사력을 다해 뛰



총회장 이초석 목사

라’는 것입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탈취한 야곱이 삼촌 라반의 고향인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가 삼촌 집 가까이에서 도달했을 때, 들판에서 삼촌 라반의 양치기들을 만나게 되는데, 야곱이 보니까 아직 해가 짙어짐이 짙은 양을 모아놓고 노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야곱은 그들에게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뜰기라”(창29:7)고 말합니다. ‘왜 일을 대충하나?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목자들은 야곱의 말에 꼼짝도 안합니다. 이런 직원이 있으면 그 회사 망합니다. 이런 며느리나 사위가 집안에 들어오면 그 집안 장래는 없습니다.
야곱은 매사 최선을 다하는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 불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창31:40). 그랬기에 삼촌 집안을 일으켰고, 자신도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거부가 되어 금의환향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개 큰일에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러나 작은 일은 우습게 여겨 대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큰 코 다치지요. 자고로 큰 바위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경도 안 쓰는 작은 돌맹이에 걸려 넘어지지요. 여호수아가 아이성 전투에 패배한 것이 그런 경우입니다. 여호수아가 큰 성인 여리고성을 함락하고는 작은 아이성을 공격했는데 그만 참패를 당했습니다. 왜?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대충 준비하고 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대강했는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백성을 다 올라가게 말고 이삼천 명만 올라가서 아

니 모 든 백 성을 그 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마소서”(수7:3). 그러다 크게 참패를 한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공격에는 여호수아가 최선을 다하기로 작정을 하고는 군사 3만 명을 뽑아 아이성 뒤쪽에 매복케 하고, 여호수아가 직접 다른 군사를 데리고 직접 아이성에 들어가 대승하게 됩니다(수8).
1원을 우습게 알면 1원 때문에 우는 날이 옵니다. ‘그까짓 거’ 하다가 그것 때문에 망신당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한 명 앞에서든 십만 명 앞에서든 똑같이 설교합니다. 사자가 토끼를 우습게 알고 대강대강 달리면 그날 굴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는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러나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는 큰 일에도 최선을 다합니다. 요셉을 보세요.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 살림을 맡아 할 때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의 손에 넘겼습니다(창39). 그는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기에 전옥의 신뢰를 받아 제반 사무를 다 처리했습니다. 그런 그가 애굽의 총리대신이 되었을 때 어땠습니까?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일해서 애굽을 부국으로 만들 어놓았습니다.
다윗도 볼까요? 다윗은 양 떼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물매를 던졌고, 사자와 곰이 와서 양의 새끼를 훔쳐 가면 쫓아가서 그 입을 찢어 새끼를 찾아올 만큼 사력을 다해 양 떼를 보호했습니다. 그 성실함으로 쌓은 실력으로 골리앗을 무찔렀고, 사울에 이어 왕의 자리에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매사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엄청난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일도 맡기십니다(마25:21).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은 제 목회 철학인 동시에 인생철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외에 나가 호텔을 이용할 때도 전기, 수도 및 자잘한 용품까지 아껴 쓰고, 방을 나올 때면 불을 끄고 침대도 정리하고 나오고, 일행들에게도 그리하라고 말합니다. 또 우리 직원들에게는 꼭 이면지를 쓰라고 당부합니다. 작은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도 맡기시기 때문입니다.

차선은 없다 오직 최선뿐이다

여러분,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딤후4:15)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일’에 ‘전심전력’에 하는 것이 매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보가 따르고, 그래야 성공하고, 그래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우리 영·혼·육의 진보를 위해 매사 최선을 다합시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12:30) 하셨으니,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합시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행20:24)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전도에 최선을 다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는 말씀대로 기도에 사력을 다합시다. 또한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엡6:7) 하셨으니 세상일에도 최선을 다합시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최선을 다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사력을 다해)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미친 듯이)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 게 열릴 것이니라”(마7:7-8). 할렐루야!

:: 교단소식 ::

:: 간증 ::

성역 41주년 기념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지난 12월 20일, 인천교회 대성전에서 성탄절과 이초석 목사님 성역 41주년을 맞이하여 JCC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Mendelssohn의 심포니 No.5 중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연주로 시작된 이날의 연주회는 손대우 형제의 피아노와 김 솔 연주자의 소프라노 색소폰, 그리고 회중과 함께 부른 성탄 찬양곡으로 이어졌다. 특히 손대우 형제의 피아노 연주로 들려준 ‘내 평생에 가는 길’은 깊은 감동을 주었다. 지난 40년 동안 교회도 없이 광야의 길을 걸어오시며 수많은 핍박과 모함, 조롱을 견뎌오신 목사님의 삶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내 영혼 평안해’라는 찬송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목사님과 우리 교단을 늘 평안의 길로 인도하셨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서울 성전으로 나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은혜가 연주를 통해 목사님과 관객들의 마음을 뜨겁게 감동시켰다.



다. 몇 차례의 기립박수가 말하듯이 이번 오케스트라 연주회는 많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연주회가 끝난 뒤 목사님은 말씀하셨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148편에는 해와 달이, 하늘의 하늘도, 산과 과목과 짐승과 가축도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오죽하겠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고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찬양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요, 노래가 없는 가정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입니다. 찬양은 경내를 평안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음악이 끊이지 않기를, 그리고 이런 음악제가 앞으로 더욱 활발히 진행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연주회를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하도록 성탄절에 앙코르 공연을 합시다.”

이번 성역 41주년 기념 JCC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을 마친 목사님과 우리 교단에 “지금까지 수고했다.”고 건네주신 아름다운 선물과도 같은 귀한 시간이었다.

오명철 생도

:: 빛과 소금 ::

꾸준함이 답이다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올해 초 우리 교단에 선포하신 전대미문의 축복을 떠올리며 1년 동안 나는 무엇을 했고 어떤 복을 받았는지 뒤돌아보았다.

연초에 나는 영·혼·육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해 몇 가지 목표를 세우고 기록해놓았다. 그중에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이룬 것도 있고, 여전히 진행 중인 것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모든 목표를 시도해보았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결국 ‘꾸준히 실천했느냐, 하지 못했느냐’의 차이였음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먼저 영적인 성장을 위해, 나는 올 한해 기도원 집회에 빠짐없이 참석하겠다는 다짐을 했다. 작년까지는 한 번도 시도해보지 못한 일이었다. 봄, 여름, 가을 집회가 열릴 때마다 아이 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하고자 하니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돕는 손길을 허락해주셨다. 덕분에 성령의 충만함이 떨어지려고 할 때마다 집회에 참석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점점 영적인 체력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게 되면서 하루에 목표했던 기도 시간을 꾸준히 채울 수 있게 되었다.

두 번째 육의 건강을 위해 러닝을 시작했

다. 운동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서 처음에 10분을 뛰고 지쳐 주저앉았던 내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뛰었더니 봄에 마라톤 5km, 가을에 10km를 기쁨으로 완주할 수 있었다. 나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경험이었다. 날씨와 컨디션에 흔들리지 않고 1년을 달려온 꾸준함이 만든 열매라고 생각한다. “마음먹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 새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각자의 소망과 목표를 마음에 품게 될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이루고 싶은 바람이 있다면 그 해답은 결국 ‘작은 실천을 멈추지 않는 꾸준함’에 있음을 고백한다.

나 또한 2026년을 향해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이전에는 망설였던 일들을 다시 용기 내어 도전해보려고 한다. 어떤 일을 시작했을 때 그 일이 익숙해지기까지는 힘이 들지만 한번 익숙해지면 그다음부터는 쉽다는 것을 올해 경험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2026년! 무엇이든 시도하고 꾸준히 실천하여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보자. 하고자 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다!

송지혜 집사

이명(耳鳴)에서 해방되었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에 귀를 몹시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그 뒤로부터 이명이 생겨 날마다 귀에서 비행기 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낮에는 소음 때문에 잘 느끼지 못하다가도 밤에는 소음이 적어 조용하니 비행기가 웅~~~~윙윙하며 날아가는 소리로 밤잠을 설치고 꼬박 새우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그러다가도 더 심해져 1년에 약 두 번씩은 울리는 소리와 함께 하울링이 일어나고 항아리 두들기는 소리가 나며 상대방 말소리가 너무 크거나 소리가 울리고 퍼져 들리며, 아니면 저~~ 멀리서 하는 소리로 아주 작게 들리니 정확하게 알아듣기 힘들어 자꾸만 되물게 되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이런 고통을 거의 40년을 넘게 앓고 있었습니다. 2025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증세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 봉사하러 기도원에 가기가 망설여졌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색하지 않고 가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때 가서 봉사했을 때 보니 수박이 없어 안타까웠습니다. ‘아니 그 흔한 수박이 없다니, 이 더위에 수박 한 쪽씩만 먹어도 속이 시원할 텐데 수박 제공하는 사람이 없었나? 내년에는 내가 해야지.’

그런데 수련회에 온 대학청년부 모두가 먹으려면 300~400만 원은 족히 있어야 할 텐데 저한테 그만한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며 2025 수련회 때는 제가 수박 좀 하게 해달라고 1년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사정을 아셨는지 울여름 수박값이 보통 비싼 게 아니었습니다. 더욱이 비싸기만 하지 그 비싼 값어치를 못하고 맛이 없는 물수박이라니요. 저에게는 수박을 살 몇백만 원이라는 돈도 모이질 않았고, 고작 100만 원의 여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으로 무얼 하지? 아이스크림을 해야 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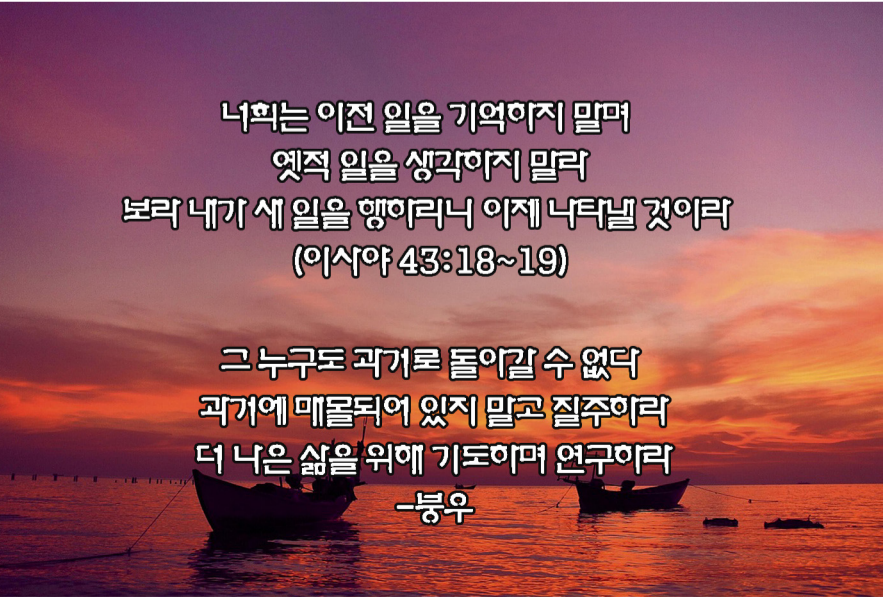
귀는 울리고 하울링이 일어나 평평 울리고 답답하고 시끄러웠지만 일단 대학청년부 연합수련회 봉사료 기도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원장목사님께 전화로 여쭙어보았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뭐가 필요하신지. 아이스크림도 다 준비가 되어있다고 하시며 음료수가 부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바로 우리 아이들이 시원하게 마실 음료수값 100만 원을 현금했습니다.

그렇게 봉사하고 이어 진행되는 기도원 하계산상집회 참석차 기도원에 도착하면 저는 하나님께 항상 먼저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 저 기도원에 왔습니다. 이번에도 간증 거리 만들어서 갈 수 있도록 하여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그 후 얼마 전 어느 날, 저는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부터인지 귀에서 이명(비행기 날아가는 소리, 웅~~~~윙윙~윙~~ 소리)이 안 나는 것을 느낀 거예요! “어머, 어머~! 귀에서 소리가 안 난다~~!” 가족들과 이야기하며 기뻐 뛰었습니다.

이제 계속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날마다 밤마다 낯밤을 새우는 게 일상이었는데 이제 잠도 잘 잡니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병을, 40년을 넘게 앓은 이 고통에서 우리 주님이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서대문교구 최성은 전도사





성도님들의 기도를 타고 2025년 열심히 달렸습니다!



노랑진 기도회 시작 (1. 2~)



코스타리카 그레시아 집회 (2. 18~27)



예수중심교단 목회자 세미나 (3. 17~19)



멕시코 살티요 집회 (4. 8~18)



춘계산상집회 (4. 28~5.1)



멕시코 마따모로스 집회 (6. 18~28)



미국 매켈런 집회 (6. 18~28)



청소년 연합수련회 (7. 28~8.2)



하계산상집회 (8. 4~14)



엘살바도르 쏘아빵고 집회 (9. 2~12)



엘살바도르 산타야나 집회 (9. 2~12)



군산 월명체육관 집회 (10. 3)



추계산상집회 (11. 3~6)



멕시코 가르시아 집회 (11. 19~28)



멕시코 몬테레이 집회 (11. 19~28)